

헌신과 부활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헌신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rch 6,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4번 - 시편 24편 찬 송 / 391장 -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통일찬송 446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526장 - 목 마른 자들아 (통일찬송 316장) 찬 송 / 540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찬송 219장)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3:7-14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273장 - 허락하신 새 땅에 (통일찬송 382장)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1:15-23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헌신과 부활의 달**”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시다.
-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 사순절 새벽집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말씀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을 힘차게 따라갑시다.
- 감사와 은혜의 예배 펜데믹 가운데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 12주 사역훈련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사순절 새벽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의 기도운동.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3월의 사역 - 사순절(3/2-4/14)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6-12)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3-19) 선교주간(20-26)
선교주일(27)

♥ 8월 영영복심 ♥ 김성배(2) 김윤경(11) 장경미(22)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2/27	3/6	3/13	3/20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2/27	3/6	3/13	3/20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타산지석: 바로의 완악한 마음** / 출애굽기 7:1-13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욕심에 사로 잡히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완악”하고 “강팍”해진다.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지금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첫째,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둘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는 마음과 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가? / 누가복음 3:7-14

그릇된 지도자를 향한 요한의 경고 — “독사의 지식”

영적교만에 대한 경고

심판 앞에 열매를 맺으라는 도전

돌, 즉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된다는 경종

세리들과 군병들은 회심과 고백

누가 요한의 경고를 경청하여 유익을 얻는가.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영적 시험에서 승리한다.”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가? / 누가복음 3:7-14

경고의 목적은 안전이다. 따라서, 경고를 달게 듣고 받아들이면 큰 유익이 된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경고의 말을 전한다. 그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적용된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경고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썩혀져 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듣고도 아무 반응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나 비난받던 군인들이었다. 세리와 군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유로 교만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대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요한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냐고 요한에게 묻자 요한은 없는 이에게 옷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라고 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요한은 세리에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경고한다. 자족할 줄 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였다.

요한의 경고를 들은 이는 많았다. 그러나 오직 경고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그 경고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요한의 경고는 그저 기분 나쁜 소리에 불과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교만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경고를 들을 때, **자신을 낮추고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하는 중에 경고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기도 한다. 문제는 경고가 들릴 때 우리가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앞에 먼저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기도밖에 없다!

낳은 지 3일 된 첫아이를 두고 죽을 뻔했다.

새벽 2시, 금요일 철야예배를 마치고 분당의 한 산후조리원에 가는 길이었다. 거기에 아내와 첫아이가 있었다.

판교 IC 를 막 빠져나가는데 역주행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나는 잠깐 정신을 잃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들것에 실려 가면서 사고 현장을 보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은 바퀴 하나만 떨어져 나갔는데 내 차는 엔진룸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

전신 엑스레이부터 찍었다. 다행히 뇌와 장기들, 신체 중요 분위는 멀쩡했다. 뇌진탕과 오른손 복합골절이 있을 뿐이었다. 조리원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이 응급조치가 끝났다.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만류했다.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날이 밝는 대로 손을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안 죽었고,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문병이 이어졌다.

그런데 내 첫아이의 엄마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가정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오늘은 사고 가운데 무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평안할 때나 아날 때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니 감사했다. 천국 가도 좋았겠지만, 가다 만 것도 괜찮았다.

그러다 문득 크리스천 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떠올랐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도 않은 일. ‘죽다 산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간혹 있다. 무용담이 되기도 하고 인생 전환점을 맞기도 하는 ‘요단강 건널 뻔한 경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중간하게 ‘죽을 뻔’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아예 죽는다. 확실히 끝장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은 기도 호흡이 필요하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기도를 새 생명의 호흡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새 생명을 얻으면 새 호흡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바로 '기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생명의 불꽃이다.
시체는 숨 쉴 필요가 없고, 불신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자라면
기도 호흡은 필수다.

새 인생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도 포함이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보라. 인생 최후의 15분 기도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겠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지 않겠는가?

나 역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며,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며 내 소명이
그들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최후의 15 분이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하겠다. 매일 새벽과 밤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 어느 날 어떤 사고 현장에서 '죽을 뻔'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매일 차곡차곡 기도해
두겠다.

혹시 죽을 뻔했던 때가 있었는가? 그때 누가 가장 생각났는가?
당신은 지금 그를 기도로 지켜주고 있는가?

송준기, [지키는 기도]

말씀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기도와
삶의 구분이 사라지기 기도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거운 숙제
같은 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것이
기도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

“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염려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헌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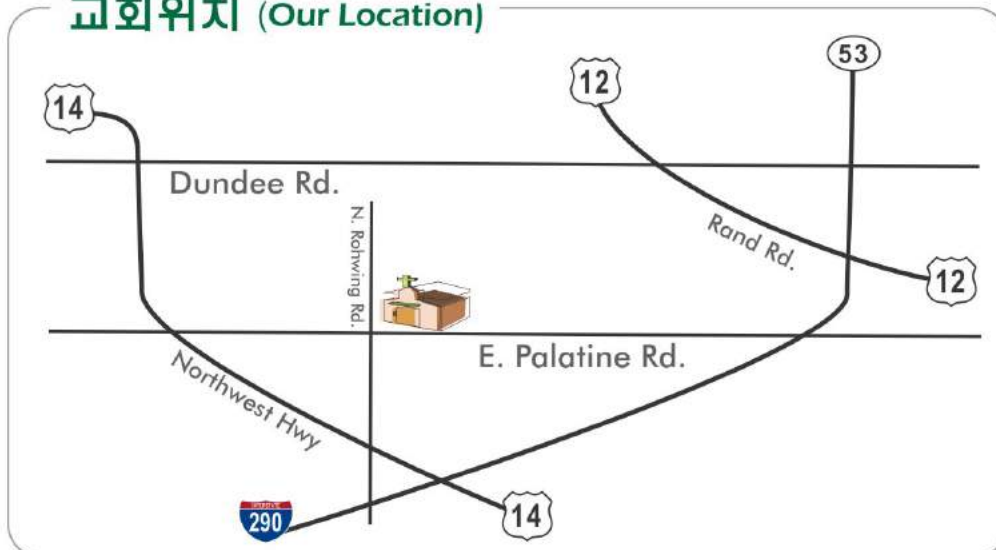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